

# 『滴天髓』 억부론 평주의 비교분석

이보영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Commentaries about Eokbu theory of *Jeokcheonsu*

Bo-young Yi

Dept. of Oriental Study,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약** 이 연구는 『적천수』에 대한 다양한 판본들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한가지 원문을 두고 평주한 시각에 따라 달라져 있는 주석에 대하여 어떤 해석이 더 타당한 것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천수』는 뜻이 감추어져 있는 매우 잘 다듬어진 시부(詩賦)의 문장이어서 명리이론들을 깨닫기가 쉽지는 않다. 시각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다 보니 평주들을 읽는데 사람들에게 혼란을 더 가중시킨다. 임철초가 증주를 추가로 저술하고 512개의 많은 명조 사례를 인용하여 『적천수』의 내용을 세분화시켜 구분하고자 한 점은 명리학의 큰 공헌이라 할 수 있다. 『적천수』의 전반을 관통하는 명리이론의 핵심을 억부론(抑扶論)이라고 보는 관점은 지배적이다. 억부론을 처음으로 언급한 문장은 ‘체용(體用)’이었으며 함께 짝을 이루는 문장으로 ‘정신(精神)’, 그리고 ‘쇠왕(衰旺)’, ‘중화(中和)’를 들 수 있다. 증반부에 이르러서 이어지는 명리 각론 중의 ‘강유(剛柔)’, ‘중과(衆寡)’에서도 『적천수』의 억부론은 이어지며 계속 논의된다.

**주제어** 적천수, 억부론, 체용, 정신, 쇠왕, 중화

**Abstract** This study used a method of comparing and analyzing various editions of Jeokcheonsu, and aims to confirm why different views have arisen on commentaries that differ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one original text, which interpretation is more valid among them. It is not easy to grasp the theories of Myeongri because Jeokcheonsu is composed of the sentences of Si-bu with being well refined and having hidden meaning. Various perspectives makes the people more confused in reading commentaries. Lim Cheol-cho make additional annotations and try to subdivide the contents of Jeokcheonsu and classify them with quoting lots of 512 exemplifications in Ming Dynasty, and it is his great contribution to the Myeongri theory. The perspective that ‘Eokbu Theory’ is core contents of Myeongri theory in the first half of Jeokcheonsu is predominate. The sentence that ‘Eokbu Theory’ is mentioned for the first time is ‘Cheayong, and we can quote ‘Jeongsin’, ‘Soewang’ and ‘Junghwa’ as a sentence paired together. ‘Eokbu Theory’ of Jeokcheonsu is discussed continuously in the ‘Gangyou’ ‘Junggwa’ of Myeongri particulars which is connected in the middle of Jeokcheonsu.

**Key Words** Jeokcheonsu, Eokbu Theory, Cheayong, Jeongsin, Soewang, Junghwa

Received 27 Dec 2021, Revised 11 Jan 2022  
Accepted 21 Jan 2022  
Corresponding Author: Yi, Bo Young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Email: qhdud1959@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이 연구는 『적천수』에 대한 다양한 판본들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한가지 원문을 두고 평주한 시각에 따라 달라져 있는 주석에 대하여 어떤 해석이 더 타당한 것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천수』는 납음오행(納音五行)과 신살(神殺)의 사용을 배제하고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생극제화(生剋制化)로 월령(月令)과 생시(生時), 그리고 체용(體用)의 왕쇠(旺衰)와 중화론(中和論)과 격국론(格局論) 등 명리의 이론체계를 간략하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어서 여러 명리학자가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 퍼져나가게 할 만큼 명리서 중에 최고라 할 수 있다.

『적천수』는 뜻이 감추어져 있는 매우 잘 다듬어진 시부(詩賦)의 문장이어서 명리이론들을 깨닫기가 쉽지는 않다. 시각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다 보니 평주들을 읽는데 사람들에게 혼란을 더 가중시킨다. 임철초가 증주를 추가로 저술하고 512개의 많은 명조 사례를 인용하여 『적천수』의 내용을 세분화시켜 구분하고자 한 점은 명리학의 큰 공헌이라 할 수 있다.

청대(清代) 중기의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는 임철초가 1846년 증주하고 원수산(袁樹珊)이 교정과 편집을 거쳐 1933년 출판되었고, 『적천수정의(滴天髓徵義)』는 임철초(任鐵樵)가 1846년 증주한 것을 서락오(徐樂吾)가 『적천수천미(滴天髓闡微)』에서 원주(原註)를 빼고 임철초(任鐵樵) 증주를 편집하여 1935년에 출판하였다. 『적천수보주(滴天髓補註)』는 1937년에 서락오가 다시 임철초의 주석을 기본으로 하고 원문에 새롭게 주석을 하고 보충하였다.

『적천수』에 담겨있는 후대 평주 간 명리이론중에서 역부론에 관련된 ‘체용’, ‘정신’, ‘쇠왕’, ‘중화’, ‘강유’ 원문에 대한 4인의 평주를 비교 분석하였다.

## 2. 역부론에 대한 평가와 주석

『적천수』의 전반을 관통하는 명리이론의 핵심을 역부론(抑扶論)이라고 보는 관점은 지배적이다. 역부론을 처음으로 언급한 문장은 ‘체용(體用)’이었으며 함께 짝을 이루는 문장으로 ‘정신(精神)’, 그리고 ‘쇠왕(衰旺)’, ‘중화(中和)’를 들 수 있다. 증반부에 이르러서 이어지는

명리 각론 중의 ‘강유(剛柔)’, ‘중과(衆寡)’에서도 『적천수』의 역부론은 이어지며 계속 논의된다.

도(道)에는 체(體)와 용(用)이 있고, 체용(體用)에서 중요한 것은 역부(抑扶)라고 하였다. 후대 4인의 평주자(評註者)는 명리 이론에서 역부의 원리를 부정하는 이는 없다. 단, 체(體)를 무엇으로 보는가, 용(用)을 무엇에서 찾는가에서 이견(異見)을 보인다.

『적천수』의 첫 평주자(評註者)인 유백은은 체(體)가 고정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체가 일주(日主)일 수도 있고, 제강(提綱)일 수도 있고, 사주(四柱) 전체일 수도 있고, 격상(格象)일 수도 있다고 하였다. 그러다 보니 그의 관점에서는 용(用)도 함께 변화한다.

임철초는 유백은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강하게 반박하며 ‘마침내 모호한 국면에 이르게 하였다.’라고 하였으며 체용은 역부로 밝혀진 용신(用神)을 가리키는 것이고 용신은 하나여야 한다고 단정한다. 그는 체(體)는 형상(形象), 기국(氣局) - 형상편에서 말하는 양기성상, 일행득기, 전상, 형진, 형결 등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없다면 일주(日主)를 체(體)로 삼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부연에서도 일주가 왕할 때, 일주가 쇠할 때, 일주가 힘을 쓰지 못하고 간합될 때, 용신이 일주를 돌볼 수 없을 때 등의 사례를 열거하며 대부분의 사주에서 체(體)는 일주(日主)가 됨을 강조한다.” 그리고 용신(用神)은 일주가 좋아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의지하는 신(神)이라고 주장하였다.

유백은과 임철초에 비해 더욱 후대에 활동했던 서락오와 반자단의 평주에서도 체용(體用)에 대하여 서로 이견이 드러난다. 서락오는 체(體)는 곧 격(格)이라 하였으니, 특수한 격인 일행득기격, 중격, 화격 등은 별개의 용신이 있을 것이나, 정격(正格)을 체로 삼는 경우 용(用)은 다채롭다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체는 정해질 수 있으나 용은 정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유백은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조하며 임철초의 일주 중심의 고정적 용신 일원론에는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반자단은 체용(體用)의 해석에 대하여 임철초와 같은 견해를 피력하고 있는데, 유백은의 평주는 어지럽고 번잡스럽다고 평가하며, 체(體)는 일주이고 용(用)은 역부용신이 중심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명리약언(命理約言)의 역부(抑扶)에 관한 내용을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1〉 억부론 관련 ‘체용’ 원문 및 4인 평주 요약

體用	道有體用，不可以一端論也，要在扶之抑之得其宜。
유백은	體用의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다. 日主-提綱이 체용, 提綱-喜神이 체용, 四柱-暗神이 체용, 四柱-化神이 체용, 四柱-歲運이 체용, 格象-日主가 체용.
임철초	體用은 곧 用神을 가리킨다. 旺한 것은 억제하나 격분하면 기세에 따르고, 弱한 것은 부조하나 무용하면 억제해 버린다. 용신은 반드시 1개로 결말이 난다.
서락오	체는 體格이요, 용은 用神이다. 독상의 용은 化神, 중격의 용은 從神, 화격의 용은 化神을 생함, 정격의 용은 다채롭다. 體는 정함이 있으나 用은 정함이 없다.
반자단	格局이 정해졌으면 用神을 찾아야 한다. 원주는 어지럽고 번잡하다. 체는 日主이고 용은 用神이다. 명리학언의 扶抑에 관한 내용을 인용하며 설명한다.

‘체용(體用)’과 짝을 이루고 있는 ‘정신(精神)’에서도 중요한 것은 손익(損益)이라고 하였다. 억부와 함께 손익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만 크게 내용상으로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임철초가 ‘형상’편에서 억부를 크게 4가지로 나누어 손(損)은 설(洩; 식상)과 상(傷; 관살)으로 나뉘고, 보(補)는 방(幫; 비겁), 조(助; 인수)로 나뉜다고 언급한 부분을 고려하면 억부와 손익의 의미를 구분 짓고자 시도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용어가 서로 혼재되고 중의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훨씬 많으므로 손익을 굳이 억부와 구분할 필요는 없다고 여겨진다. 4인 평주에서 더 주목할 부분은 정신(精神)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유백은은 정(精)은 金水이고, 신(神)은 木火라고 하였다. 木火를 양기(陽氣), 金水를 음기(陰氣)라고 구분하는 음양의 논리로 정과 신을 구분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임철초에 의해 바로 반박을 받고 있는데, 유백은이 언급한 金水를 정기(精氣)라 하고 木火를 신기(神氣)라고 한 것은 金은 폐(肺)이고 水는 신(腎)이므로 상생하여 안에 간직되고 木은 간(肝)이고 火는 심(心)이므로 상생하여 겉으로 드러난다는 한의학 이론을 명리에 차용한 것일 뿐 명리적 관점이 아니라는 것이다. 임철초가 생각한 정(精)은 일주를 생하는 것, 신(神)은 일주를 극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주를 생하는 정(精)이 많으면 일주

대표되는 기(氣)가 넉넉해지고, 기(氣)가 넉넉하면 일주를 극하는 신(神)도 왕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친다. 결국 정신기(精神氣)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화이며 이를 위해서는 손익(損益), 즉 억부가 다시 한번 사주 이론의 핵심임을 평주를 통해 강조하고 있다.

반자단은 정신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유백은의 의견도 임철초의 의견도 모두 가능한 사고이고 무엇이 되었든 덜고 더하여 중화(中和)를 이루는 억부(抑扶)의 관점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정신’편에서 이견을 보이는 평주자는 서락오인데 정신(精神)은 말 그대로 육체나 물질에 대립되는 영혼이나 마음을 의미하는 무형의 것으로 순수정수(順遂精粹), 유정무정(有情無情)에 해당하는 것인데, 유형의 것인 유력무력(有力無力), 간지(干支)와 십성(十星), 한난조습(寒暖燥濕) 등과 구분되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억부와 손익의 원리가 무형의 영역과 유형의 영역에 모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주하고 있다.

〈표 2〉 억부론 관련 ‘정신’ 원문 및 4인 평주 요약

精神	“人有精神，不可以一偏求也，要在損之益之得其中。”
유백은	精은 金水이며, 神은 木火이다. 土는 實體의 氣라 하였다. 어느 한쪽에서만 구하면 옳지 않고 損益에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進退이다.
임철초	원주를 비판(金水, 木火의 논리는 한의학), 精은 일주를 생, 神은 일주를 剋, 氣는 사주전체로 이해, 또 精神을 損益과 연결하여 억부를 사주원리로 부각.
서락오	精神은 무형에 속하는 것으로 順遂精粹, 有情無情 등의 개념이다. 有力無力, 간지십성, 한난조습의 뒤에 놓인다. 精神이 있어도 高低와 損益이 있다.
반자단	精神이 무엇이든 덜고 더한다 하였으니 中和의 원리이다. 원주는 정신을 金水, 木火로 구분했고, 임철초는 생하는 氣와 剋하는 氣로 나뉘었다. 둘다 가능하다.

『적천수』에서는 쇠왕(衰旺)을 알면 절반 이상을 얻은 것이요, 중화(中和)를 알면 완전한 능력을 얻은 것이라 하였다. 적천수의 순서를 재배치하고 정제함에 집중했던 반자단은 ‘통천(通天)’에서 시작하여 ‘중화(中和)’까지가 명을 추론하는 근본법칙의 일단락이라고 하였으며, 그 이후는 각론(各論)으로서 보충하는 내용이라고 하였다. 그의 시각에서 중화가 명리의 최종 목표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쇠왕(衰旺)과 중화(中和)에 대한 4인 평주자의 견해차가 크게 갈라지고 있지는 않다.

단, 임철초가 쇠왕을 왕상휴수, 생왕사절로 논하는 명리 논법이 이제는 죽은 법칙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보인 점을 제외하면 말이다. 임철초는 생왕사절 12궁에 집착하는 명리가들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이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사실 평주자들이 쇠왕의 논리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시각은 쇠함이 극에 달하면 더해도 소용이 없으니 덜어내 버림으로써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해야 하고, 왕함이 극에 달하면 덜어내도 소용이 없으니 더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한다는 것이다. 즉, 쇠왕은 氣가 오르고 내리는 과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3〉역부론 관련 ‘쇠왕’ 원문 및 4인 평주 요약

衰旺	能知衰旺之眞機，其於立命之奧，思過半矣。
유백은	旺하면 洩하고 旺함이, 衰하면 幫하고 生함이 이치이다. 그러나 왕함이 極에 이르면 덜어낼 수 없고, 쇠함이 極에 이르면 더할 수가 없으니 반대로 凶할 수 있다.
임철초	쇠왕은 왕상휴수를 말하는 것이나 死法이다. 춘목일지라도 금이 많으면 부유하지 못하거나 요절하니 시령을 얻어도 왕하지 않은 예. 한편 五行顛倒도 발생
서락오	태왕하면 洩하고 旺極하면 生하고, 태쇠하면 旺하고 衰極하면 洩한다. 기본원리 외에 조후와 오행의 성격까지 세밀히 살펴야 眞機를 알 수 있다. (체용정신)
반자단	쇠왕을 得습, 失습으로만 논하지 말라. 다양한 경우가 있고 특히 비정상적으로 旺함이 極에 달하면 오히려 衰해지고, 衰함이 極에 달하면 오히려 旺해진다.

중화(中和)를 유백은은 ‘자평지요법(子平之要法)’이라 하였고, 임철초는 ‘명중지정리(命中之正理)’라고 평하였다. 서락오와 반자단에 이르기까지 중화를 명리의 근원이자 원칙이라는 보고 있다는 점에 이견은 없다. 유백은이 원주에서 중화설과 대비하여 병약설을 언급하며 부정적 시각을 피력해서인지, 임철초 서락오에 이르기까지 병약설에 대한 시각이 곱지는 않다. 서락오는 강한 것은 억(抑)하고 약한 것은 부(扶)하는 것이 억지부지(抑之扶之)요 이것이 곧 중화라 하였다. 중화를 인식한 이후에 반생반극, 억양진퇴, 전도음양 등 특수한 경우의 수를 연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앞서 반자단이 적천수의 순서를 재배치하며 중화까지 단락을 나누었음을 밝혔는데, 서락오는 체용, 정신, 월령생시, 쇠왕, 중화를 ‘제2편 中 체용정신’이라는 큰 제

목을 달고 그 하위의 시작으로 삼고 있다. 참고로 ‘제2편 中’에는 이어서 원류, 통관, 청탁, 진가, 은원, 한신, 기반을 각론으로 삼고 있다.

〈표 4〉역부론 관련 ‘중화’ 원문 및 4인 평주 요약

中和	能識中和之正理，而於五行之妙，有全能焉。
유백은	中化는 자평의 중요한 법칙. 病이 있어 귀하고 傷해야 기이하다는 병약설을 비판. 신약한데 재관이 왕하거나, 용신이 強하면 化할 필요가 없다는 등은 교묘함이다.
임철초	중화는 명리의 正理. 여러 면에서 인생이 평탄함은 중화의 정기를 얻었기 때문이다. 중화를 운에서 보충하면 후일 도리를 얻는다. 病藥說의 치우침을 비난.
서락오	중화를 안 연후 반생반극, 억양진퇴, 전도음양을 익히라. 춘목이 丙를 기뻐하고 쫓로 썩는 것이 그렇다. 병약설도 중화이긴 하나 大起大落이니 무엇이 나온가? 체용정신
반자단	中和는 體用, 精神, 衰旺의 결론에 해당한다. 사주 해석의 근원이자 최종 원적이 중화이다. 적천수의 사주 해석 원리는 이 단락까지이며 이후는 보충설명이다.

『적천수』의 체용, 정신, 쇠왕, 중화 4개의 문장이 역부론을 구성하는 주요 문장임을 살펴보았다. 이후 이어지는 각론의 여러 문장 중에서 역부론을 뒷받침 해주는 문장을 골라본다면 ‘강유(剛柔)’와 ‘순역(順逆)’과 ‘중과(衆寡)’를 선택할 수 있다. 강유(剛柔)의 어원적 의미는 굳셈과 부드러움이다. 4인 평주자의 설명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굳셈과 부드러움은 명리적 시각에서 陽과 陰의 비유법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단, 『적천수』에서 강유는 한 가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므로 음양으로 한정시킬 이유는 없다. 강유를 역부론에서 다루고자 함은 이어지는 내용 때문인데, “체제할 수 없다면 그 성정을 끌어내는 것이 옳다.”는 설명을 하고 있다. 지나치게 굳센 것은 극하여 체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므로 설기하여 끌어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다. 임철초는 극하고 설기하고 끌어내고 중한다는 극설인중(剋洩引從)의 4가지 흐름을 추가로 설명하고 있다.

강유(剛柔)에 이어서 나오는 순역(順逆)과 중과(衆寡)의 문장은 크게는 역부론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도 있으나, 종격의 원리를 설명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5〉 억부론 관련 ‘강유’ 원문 및 4인 평주 요약

剛柔	剛柔不一也，不可制者，引其性情而已矣。
유백은	剛한 것은 柔를 가지고 도와야 하나 精이 없으면 剛대剛이요, 柔한 것은 剛을 가지고 도와야 하나 精이 없으면 柔대柔가 되어 그 僻해가 심해진다.
임철초	강유는 陰陽, 建順일 뿐이다. 강한 가운데 유하고, 유한 가운데 강한 것이나, 洩하거나 扶하여 쓸모있게 하여야 하나 지나치면 不宜. 洩洩引從을 잘 살피라.
서락오	(사주총론) 剛은 陽干이요 柔는 陰干을 말하는 것이다. 사주에서 무리가 많은 것은 억제하여 提할 수 없고, 설기하여 引함이 마땅하다.
반자단	(강유순역) 지나치게 剛세면 오히려 剛을 도와야 하고, 지나치게 柔드러우면 오히려 더 柔롭게 하라. 또 지나치게 剛세면 氣보다 洩氣가 낫다.

### 3. 결론

『적천수』 원문(原文)을 평주했던 명(明), 청(淸), 근대(近代)의 명리학자는 유백은, 임철초, 서락오, 반자단 이렇게 4인이다.

『적천수』의 전반을 관통하는 명리이론의 핵심을 억부론(抑扶論)이라고 보는 관점은 지배적이다. 억부론을 처음으로 언급한 문장은 ‘체용(體用)’이었으며 함께 짝을 이루는 문장 ‘정신(精神)’, 그리고 ‘쇠왕(衰旺)’, ‘중화(中和)’, ‘강유(剛柔)’ 등을 들 수 있다.

후대 평주간 비교에서 가장 이견이 많이 나타났던 평주자는 임철초이다. 억부론 부문에서는 본인의 일간 억부용신 이론을 강하게 주장한다거나, 왕상휴수 생왕사절에 대해서 죽은 법이라고 배척하는 의견을 펼치다 보니 다른 평주자들과 이견이 많이 발생했다.

서락오의 평주도 임철초 다음으로 다양한 부문에서 많은 수의 이견을 가진 것으로 집계된다. 그도 본인의 색깔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명리학자였음을 반증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정신(精神)은 金水, 木火로 대별되는 것이 아니고, 일간을 극(剋)하고 설(洩)하는 것도 아니며, 무형의 것이고 간지 형상의 뒤에 놓인 것이라 하였다. 강유(剛柔)도 양간은 강하고 음간은 유하다는 논리를 펼치고, 순역(順逆)을 종왕과 종강으로 한정하여 평주하기도 한다. 반자단의 평주는 유백은과 더불어 『적천수』의 원문 해석에 집중하는 경향성을 보이므로 이견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고, 논리적이고 편향되지 않은 평주를 진행하고 있다.

『적천수』는 원문의 내용이 너무 축약적이고 비유적

어휘가 많아서 후대 독자들은 반복 독서하며 그 속에 숨겨진 함의를 찾고자 고민하여야 하였다. 그리고 보조 수단으로 평주(評註)를 읽게 되는데 당연히 평주의 장점은 어려운 원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지만, 평주의 단점은 독자가 평주를 읽고 난 이후에는 그 해석의 프레임 속에 갇혀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구자는 원문과 평주를 함께 독서하는 경우 한 종의 평주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왔고 이번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1] 徐樂吾, 『滴天髓補註』, 台北: 武陵出版社, 1999.
- [2] 徐樂吾(編註), 『滴天髓徵義』, 台北: 武陵出版社, 2016.
- [3] 劉伯溫(著), 『滴天髓輯要』, 台北: 瑞成書局, 1996.
- [4] 任鐵樵 增註, 袁樹珊 選輯, 『適天髓闡微』,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11.
- [5] 水繞花堤館主, 『滴天髓新註』, 台北: 有林出版社, 2011.
- [6] 구경희, 『적천수강해』, 서울: 동학사, 2013.
- [7] 김기승·김현덕, 『적천수천미』, 다산글방, 2017.
- [8] 김기승, 『과학명리』, 서울: 다산글방, 2016.
- [9] 김기승·나혁진, 『명리학사』, 다산글방, 2017.
- [10] 수요화제관주 著, 나명기 譯, 『완역 명학신의』, 서울: 드림엔비전, 2013.
- [11] 서락오 보주, 이무학 譯, 『적천수보주』, 서울: 삼하, 2001.
- [12] 임철초 증주, 원수산 선집, 김동규 역, 『적천수천미』, 명문당, 2002.

### 이 보 영(Bo-Young Yi)



- 2018년 03월~현재 : 경기대평생교육원 명리학교수
- 2019년 03월~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박사과정)
- 2018년 08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동양학석사)
- 관심분야 : 명리학, 진로상담, 교육
- E-Mail : qhdud1959@naver.com